

오늘의 말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6:11-12

통 권 제 211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07년 7월 15일

함즐함울

www.pcltv.org



지난 7월 1일 3부 예배중 2007 단기선교 파송식이 진행되었다. 성도들은 '파송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단기선교팀원들을 축복하고 기도했다.

창립기념주일 설교	2면
2007 임직자 선거 최종 결과	3면
기자가 본 영화이야기, 밀양	4면

로 템 나무

“시험을 당할 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약1:2-3)

나는 시험을 당하지 않으려고만 한다. 시험을 당하는 것이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그러나 시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나를 빛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내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있다. 건강하고 풍족하고 아무 근심이 없는 삶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내면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길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후4:16)

하나님께서 나의 인격을 다듬으신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러므로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인내이다. 기쁘게 참고 견디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주님!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오히려 시험을 통해 성숙하고 온전한 인격으로 다듬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엄혜숙 기자

기도와 찬양의 잔치! 교구별 하기 수련회 열려

-대지의 품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성을 음미하고...

우리 교회는 오는 7월 16일(월)부터 21일(토)까지 각 교구별로 교구수련회를 갖는다.

각 교구는 실정에 맞는 주제를 택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지난 한 학기동안의 구역활동에 대해 서로 검토하고 다음 한 학기를 당차게 이끌어갈 비전을 준비하고 있다.

가장 먼저 실시하는 4교구 신화식 목사는 “교구별로 목사님과 행사진행 준비위원들이 4월부터 준비모임을 갖고 기도해왔다.”며 어느 해보다 올해는 “새로운 목사님과 성도들의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해가 되

도록 기도하겠다.”고 수련회의 기도제목을 나누었다.

송용미 집사는 “이번 수련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난 여름 수련회의 아름다운 기억도 떠올렸다.

한편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7월 15일부터 30일까지 부서별로 교회 안팎에서 진행되며 온교사들은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하태원 기자

2007 하기 교구수련회

교구	일시	장소	주제
1.8교구	7/20-21	화성 하내수련원	회복, 처음처럼 마지막까지
2교구	7/16-17	청평 채플녹수교회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3교구	7/20-21	경기도광주 사랑의집	기뻐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
4교구	7/16-17	가평 루디아의집	내가 너희를 쉬게하리라
5교구	7/20-21	용인 태화국제학교	나의 찬송! 나의 하나님!
6.7교구	7/16-17	화성 하내수련원	영적 하프타임



애통하는 자의 복

(마 5:4)

7월15일(오늘) 오후 3:30 대예배실



“쓰임 받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요엘 2: 28-30 행전 2: 42-47

기도 없이는 아무리 훌륭한 결단이라도 어느 순간 전통이 되어버리고, 형식이 되어버리고, 아니면 인간의 업적이나 자량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생명들이 우리를 떠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은 초대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모인 우리 모두에게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를 통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유전자

먼저 창립 19주년을 맞는 우리가 왜 2000년전 초대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대답은 그 교회가 모든 교회의 출발이요 원형이며 유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초대 교회를 생각하는 것은 다시금 우리의 근본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성령이 불의 혀 같이 갈라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은 왕이나 제사장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평범한 갈릴리 사람들에게 성령이 주어질 수 있던 말입니까? 이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는 이 사건이 구약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한 마디에,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경이함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요엘의 예언은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이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구원사의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 출발했음을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종말의 때에 자녀들의 장래 일을 말하며, 늙은이가 꿈을 꾸며, 젊은이가 이상을 보고,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리라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들에게나 주어졌던 그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의 거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교회를 시작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들을 따르게 되고 이 거룩한 대열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 교회의 사건이며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가진 근본 유전인자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이 유전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나라의 회복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소망했던 마지막 종말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죄의 역사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낮은 골짜기가 높아지고 굽은 길이 곧아지는 것입니다. 억눌린 자가 풀려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저는 자가 걷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변화가 그들의 삶속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존재와 삶과 관계 속에 자리 잡았던 모든 죄악의 역사가 무너지고 악한 영들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고 새로운 삶이 나타나며 새로운 관계가 태

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새로운 모습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을 경험한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성전에서는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는 음식을 나누어 먹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 듣기를 갈망하며 청지기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기적인 삶이 무너지고 공동체의 삶이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차별이 다 무너지고 같은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함께 떡을 떼므로 온전한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자 이들로 인해 생명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수 천 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세워지며, 청지기의 삶이 시작되며, 공동체가 이루어지며,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났습니다.

기도와 사명

마지막으로 그들이 가진 소중한 모습에 관심을 가져봅시다.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42절)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왜 자신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주어졌는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사장에게 임했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고, 왕에게 임했던 능력의 성령이 나타났습니다. 선지자에게 임했던 말씀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거룩한 영을 결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일만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이 감추어졌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자신들의 지식이 가려졌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의 소망은 드러졌지만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생명이 구원받았습니다! 땅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기도하기를 쉴 수 없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거룩한 영광을 경험한 자신들이 거룩한 사명에 쓰임받겠노라고, 거룩한 역사를 증거하겠노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 온전히 성령에 의지하면서, 이 소망을 이루며 기도할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 교회가 경험한 것이었고, 이들의 영광이었고, 그리고 훗날 이 땅에 태어날 모든 교회가 기억할 영광입니다. 이 땅이 모든 교회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경험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새 창조의 장소입니다. 오늘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이 영광을 바라보며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늘도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을 의지하면 이 거룩한 영광을 체험하며, 증거 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교회는 처음부터

엄청난 일을 결단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건물도, 소유도, 직분도 내 것으로 갖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일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울러 기도 없이는 이 모든 일들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 없이는 아무리 훌륭한 결단이라도 어느 순간 전통이 되어버리고, 형식이 되어버리고, 아니면 인간의 업적이나 자량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생명들이 우리를 떠나고 말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설교를 맺으려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개인의 신앙 고백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는 단체도, 기관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교회의 신앙 고백은 성도들의 삶의 고백입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교회라는 단체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성도에게, 성도의 모임 가운데 주어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도가 그러했고 초대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듯이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포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무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록 지금 우리 눈에는 악의 세력이 더 관영하고, 더 강해지고, 더 확장되게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을 향하여 힘 있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좌절이 다가오고, 절망이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제 창립 19주년을 맞아,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금 기도에 온전히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금 온전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금 이 공동체가 생명이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7 임직자 선거 결과 발표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딤후3:8-9)

2007 교회 임직자 선거를 마쳤다. 2차 투표에 걸쳐 장로 4명, 안수집사와 권사 각각 28명의 일꾼이 선출되었다. 선출된 60명은 1년간의 피택자 교육을 받게 되며 내년 창립기념주일에 임직하게 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은 이들의 직무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장로 :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며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회개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집사 :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

권사 :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장로
(총 4명)



박중규 (7-3)



박대길 (5-20)



장일형 (1-10)



조성득 (7-18)

안수집사
(총 28명)



최재규 (2-8)



윤하중 (4-17)



권덕원 (5-11)



유정식 (2-8)



황용환 (7-2)



홍운식 (7-18)



이문채 (2-1)



박규택 (5-23)



이성래 (5-19)



박인국 (7-2)



유승하 (1-15)



송행근 (3-9)



고석창 (2-4)



방치웅 (5-2)



김두웅 (1-7)



이성준 (3-3)



김낙균 (1-15)



유희문 (4-6)



김창균 (2-3)



김 혁 (4-10)



조병길 (5-4)



최영배 (1-17)



하광엽 (1-16)



김성운 (1-4)



황준기 (6-14)



강승종 (1-4)



임봉수 (7-17)



김인성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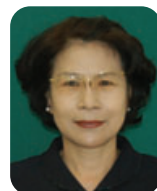
권사
(총 28명)



신명식 (1-3)



이춘옥 (4-20)



권승님 (5-23)



박형자 (5-20)



권이흥 (7-18)



고정옥 (2-8)



방혜준 (6-19)



오영숙 (4-10)



김고미 (6-5)



김진숙 (4-17)



유임순 (4-6)



이영란 (3-9)



길금옥 (1-7)



김화순 (3-9)



박지원 (5-20)



문현주 (2-5)



양계수 (4-17)



김영림 (7-17)



김홍숙 (5-8)



문희주 (1-2)



이정임 (2-8)



조옥실 (7-12)



서광숙 (1-11)



김현진 (3-8)



이명자 (1-14)



한정신 (6-17)



전진희 (7-18)



황정매 (2-2)

주방부
봉사자 모집

봉사를 원하신다고요? 주방부로 오세요!

주일에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두 말할 것이 없이 행복한 일이지만 교회 식당에서 제공하는 국수를 먹는 것도 빠뜨리기 쉽지 않은 재미 있는 경험이다.

하지만 이같이 성도들을 즐겁게 하는 국수 한 그릇이 저절로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 새벽 5시부터 준비해야 하는 봉사자들이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별

히 요즈음 같은 여름에는 물을 끓이고 국수를 삶는 주방이 무척 덥고 습도가 높아 봉사자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고 한다. 우리가 아무런 생각없이 먹는 이 국수 한 그릇 안에는 봉사자들의 이같은 사랑과 헌신이 숨겨져 있다.

마침 주방부에서는 하나님 이 보시기에 이 좋은 사역에 함께 봉사하실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특히 국과

면 등 무거운 짐을 옮겨줄 수 있는 남자 봉사자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교회봉사를 시작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해야할 지 모르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방봉사를 꼭 권하고 싶다. 몸은 고되지만 그만큼 보람과 기쁨이 큰 행복한 부서이다. 신형섭기자

(오전 9~11시)
(12시 30분부터 마무리까지)
※문의:김 금숙권사
011-9192-6776



레몬향 가득, 자연화장수 만들기



제2여성교회 월례회가 7월4일 유치부실에서 열렸다. 비가 많이 왔지만 3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는 열심을 보였다. 회장 고정순권사의 진행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예배후에는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자연화장수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준비물은 레몬 한개와 정종 한병, 글리세린 한방울이다. 회원들은 실험하듯 꼼꼼하게 설명을 듣고 그대로 따라했다. 자연화장수를 만들다보니 유치부실이 레몬향으로 가득찼다. 회원들은 작은병에 자연화장수를 나누어 담았다.

모일 때마다 즐겁다는 2여성교회! 회원들은 벌써부터 다음달 월례회가 기다려진다.

소옥민 기자

Misson 한글함글, 표준어사용 시리즈

‘우리가 표준말의 희망입니다.’

부아가 나다(O)

부화가 나다 부애가 나다(X)

요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더위와 함께 복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원인은 냉방병. 하루 종일 에어컨 바람을 맞으면 극심한 실내외 온도차로 위장질환 및 전신피로까지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더울수록 이열치열!

그래서 오늘은 ‘화(火)’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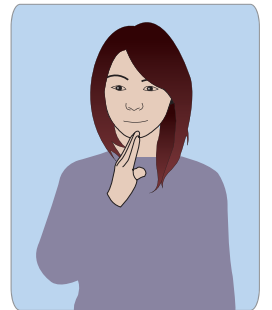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몹시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나는 성"을 ‘화’라고 하고, 화가 치밀다/화를 내다/화를 돋우다/화를 풀다처럼 씁니다. 이때의 ‘화’는 불 화(火) 자를 씁니다. 이와 거의 비슷한 뜻의 순 우리말이 ‘부아’입니다. ‘부아’는 우리가 숨을 쉬도록 해 주는 ‘폐’의 순 우리말입니다.보통 화가 나면 숨이 가빠지는 것을 보고 ‘부아가 나다’ ‘부아가 치밀다’라는 표현이 생겼습니다. ‘화(火)’와 혼동하여, ‘부화가 난다’라고 하거나, ‘부애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정애 기자



누구 [who]란 뜻이에요

오른손등으로 오른 뺨을 상하로 스치며 움직이면 누구란 뜻이랍니다



정말(참) [really, true]란 뜻이에요

오른손을 세워 턱 중앙에 대면 정말 이란 뜻이랍니다

기자나본 영화인 이야기

밀양, 도전하는 영화인가 전도하는 영화인가

이 영화의 주인공인 신애(전도연)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고향 밀양에 어린 아들 준이를 데리고 정착한다. 피아노 학원을 열어 통장에는 돈의 거의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좋은 땅을 보러 다닌다며 거짓말을 한다. 이 일이 화근이 되어 아들 준이가 다니던 웅변학원의 원장이 준이를 납치하여 돈을 요구하고 신애는 그런 큰돈이 없다며 솔직히 말하지만 결국 아들은 사체로 발견된다. 아들을 잃고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다 주변 이웃들의 권유로 교회에 다니면서 믿음을 가지게 된 신애는 어느 순간 아들을 죽인 범인을 면회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용서하겠다는 고백을 한다. 교도소에 가서 면회를 신청한 신애가 아들을 죽인 원수를 대면하고 힘들게 입을 연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 왔다고.. 그런데 정작 용서를 감사해야 할 범인은 너무나도 담담하

게 이미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하며, 사람을 죽인 죄인 중의 죄인인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요즘은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평안한 얼굴로 말한다. 아들을 죽인 원수를 가장 큰 피해자인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용서해 버린 하나님에 대해 분노하게 되고 그때부터 신애는 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에 도전하는 행위를 시작한다.

처음 영화를 보고서는 이 영화에서 범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빌미로 자신의 잘못과 허물까지 교묘하게 정당화 시켜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려고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뭔가 가슴속에 답답한 마음이 일면서 단지 그러한 메시지만을 전달하려 한 것은 아닐 텐데 하는 의문이 들었다. 영화 ‘밀양’이 우리를 전도하기 위한 기독교적인 영화인가 아니면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한 반기독교적인 영화인가 하는 논의를 하는

것 보다는 신애가 겪는 마음속의 갈등 자체에 주목해 보는 것이 이 영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우리의 큰 죄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렇지만 신애는 자신의 믿음의 깊이를 교만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으려 노력할 수는 있으나 자신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세상에 보내주신 주님의 사랑과 크신 용서와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영화감독은 밀양이라는 영화를 통해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인간은 그저 그것을 닮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 뿐이라는 것을 말하려 한 것은 아닐까 한다.

이정애 기자



밀양 (Secret Sunshine, 2007)

감독 :이창동

출연 :전도연, 송강호,